

[38~42] (가)는 방송 대담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이며, (다)는 학생회장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특별 기획 '박물관에 바란다'입니다. 우리 지역 박물관은 증축을 추진하면서 시민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박물관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겠습니다.

전문가 1 : 이 지역은 ○○ 문화의 중심지였고, 박물관에서는 토기와 왕릉의 왕관 등 ○○ 문화의 흥망성쇠를 보여 주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문화권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행자 : 지역의 역사와 유물을 고려해 상설 전시실 규모를 늘리자는 말씀이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전문가 2 :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육, 공연, 시민 교류 등을 위한 시민 활용 공간들을 확보해서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전문가 1 : 교육 공간의 확보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육 공간 이외의 시민 활용 공간보다 유물 보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행자 : 보존 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가 1 :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는 게 박물관 본연의 기능이기에 때문입니다. 보존 공간이 부족해 5년 만에 재증축한 □□ 박물관의 전철을 밟으면 곤란합니다. 증축할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가 2 : 말씀에 공감하지만, 이번 증축을 계기로 박물관이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행자 : 공간 구성에 대한 두 분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B]  
 다음으로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을 논의해 볼까요?  
 전문가 1 : 박물관의 핵심은 유물 보존과 연구입니다. 특히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실 있는 전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물 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가 2 : 최근 새로 제시된 박물관의 정의에 공동체의 참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지요. 이는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방금 하신 말씀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궁금하네요.  
 전문가 2 : 박물관에서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겠군요. [C]

(나)  
 학생회장 : '박물관에 바란다'를 보고 우리도 박물관에 건의하기로 했잖아. 무엇을 건의할지 이야기해 보자.  
 학생 1 : 전문가가 우리 지역은 ○○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했으니, 박물관을 왕릉 모양으로 만들면 뜻깊을 거야.  
 학생 2 : 흥미롭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학생 1 : 그럼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 달라는 건 어때?  
 학생 2 : 그래. 역사학 관련 체험 강좌가 박물관에 없어서 진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게 문제였잖아.  
 학생회장 : 방송에서 유물 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강좌는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또 다른 건의 사항 있어?  
 학생 1 : 설명 위주의 기존 전시 방식에 친구들의 불만이 많잖아. 유물 모형을 만져 보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자.  
 학생 2 : 맞아. 박물관이 다양한 시민 활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도 그랬잖아.  
 학생회장 :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 볼게.

(다)  
 박물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 고등학교 김◇◇입니다. 증축을 앞둔 박물관에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유물 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 청소년은 체험해 보는 교육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존 박물관은 유리벽 안의 유물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청소년의 불만이 많습니다. 유물 모형을 만져 보며 체험하는 공간이 생긴다면, ⑦지역의 많은 청소년이 유물의 가치에 대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박물관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①체험 중 안전사고를 우려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자원 봉사자의 참여로 해결 가능하며, 이는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대상의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은 ○○ 문화의 중심지여서 많은 청소년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많은 편이지만, 진로 체험의 기회는 부족합니다.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의를 수용할 경우 ②박물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하실 수 있지만, 이보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증축될 박물관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참여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38.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 '전문가 1'의 질문 내용을 요약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 2'의 생각을 묻고 있다.
  - ② [A] : '전문가 1'의 답변 중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밝히며 추가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 ③ [B] : '전문가 1'과 '전문가 2'의 제안을 종합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B] : '전문가 1'과 '전문가 2'가 밝힌 의견에 대해 감사를 표한 후 이어서 논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⑤ [C] : '전문가 2'가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재진술하며 예상되는 문제를 밝히고 있다.

39. 다음은 (가)의 전문가들이 대담을 준비하며 쓴 메모의 일부이다. ㉠~㉢과 관련하여 계획한 내용 중 (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전문가1]	[전문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권 상설 전시실 규모 확대가 필요함. — ㉠</li> <li>· 유물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li> <li>· 유물 보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적극 수용되어야 함. — ㉣</li> <li>· 박물관이 복합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함. — ㉤</li> </ul>

- ① ㉠ : 박물관에서 지역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시한다.
- ② ㉡ : 내실 있는 전시는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언급하며 유물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 ③ ㉢ :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다시 증축하게 된 다른 박물관의 사례를 제시한다.
- ④ ㉣ : 박물관의 정의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언급하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 ⑤ ㉤ :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면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함을 이유로 제시한다.

40. (가), (나)의 담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박물관의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로 제시되었다.
- ② '학생회장'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증축될 박물관의 향후 전망으로 제시되었다.
- ③ '학생 1'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박물관 전시 방식의 개선이라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 ④ '학생 1'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체험 교육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선호라는 건의 이유로 제시되었다.
- ⑤ '학생 2'가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역사학 관련 진로 체험 강좌의 부재라는 문제 상황으로 제시되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건의문의 필자는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때, ㉠건의가 필자 개인만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것임을 드러냈은 물론, ㉡건의를 받는 독자의 이점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한편, 건의를 수용할 경우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독자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필자가 이를 예상하여 독자가 우려하는 점은 해결 가능하다거나 ㉢우려하는 점보다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 ① ㉠ : 체험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 ② ㉡ : 체험 중 안전사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청소년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 ③ ㉢ : 체험 중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자원봉사 기회 제공이라는 이점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 ④ ㉣ : 박물관 운영상의 부담이 해결된다는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 ⑤ ㉤ : 박물관 운영상의 부담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42. 다음은 (다)의 3문단의 초고이다. 3문단에 반영된 수정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물관에서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역사적 자긍심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진로 체험의 기회가 부족하므로 체험 강좌가 운영된다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음악회, 미술전 등 문화 행사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 ① 청소년 진로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 ② 진로 체험 강좌의 수강 대상을 제시한다.
- ③ 청소년이 지역에 자긍심을 느끼는 이유를 추가한다.
- ④ 청소년이 진로 체험 강좌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밝힌다.
- ⑤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삭제한다.

## <효율적 문제 풀이 전략>

우선 지문의 구조를 봅시다. 제가 이론 교재에서 언급했던 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번째 페이지의 기본 골격은 화법(토론,토의,강연)에서 말한 내용을 작문에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는지, 적용된다면 화법에서의 표현이 어떻게 작문에서 표현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우선 (가)를 읽으며 처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죠. (가) 단독 문제인 38번이 있습니다. 단락 문제니 단락을 보며 바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이걸 지문 읽으며 중간에 끊고 풀어야 합니다. 또한 이론책에서 설명드렸듯 가급적 해당 문장을 말의 구조로 변환시켜 출제포인트화 한다면 선지를 보자마자 바로 지울 수 있겠죠.

그리고 39번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전문가 1과 전문가 2를 나눠놓고 각각의 기호에 해당하는 말을 제시했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짧은 글에서 전문가1이 서로 다른 3가지 정보를 제시한다면 그 정보가 바로바로 나와야지 a나왔다가 한참 설명하고 b가 나오는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라면 지문에서 적당한 기준을 두고(38번이 옆에있으니 단락을 기준으로 끊고 보셔도 되고 각 전문가가 제안하는게 나올때마다 끊어도 됩니다.

아직 2번째 페이지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전략을 안세웠죠. 제가 그렇게 이론책에서 강조한 유형입니다. 화법에서 각 의견을 넘버링하며 구분하고 작문에서도 그걸 표시해주라고 했었죠? 왜냐면 문제는 화법에서 말한 내용 중 어떤게 작문에서 적용되었냐, 적용되었다면 어떻게 적용되었느냐를 물어본다구요. 40번은 대놓고 문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만약 지문에서 구분하고 매치시키는 작업을 안했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겠죠.

지문에서 전문가 각각의 의견들에 1번 2번 이런식으로라도 구분해주고 추후에 (나)와 (다)에 각각 매치시켜줍니다. 이 과정에서 주장 내용에 따라 숫자로 구분해놓으니 39번과 연결지어 구분할때마다 39번 선지로 가서 하나씩 지우는 방법도 괜찮아보입니다. 이제 지문을 읽어보시죠.

## (가)지문분석

### 지문

진행자:안녕하십니까? 특별 기획 ‘박물관에 바란다’입니다. 우리 지역 박물관은 증축을 추진하면서 시민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박물관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 진행자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있나요? 진행자는 말 그대로 진행자이기에 뒤에 작문에서도 적용되는 문제도 없습니다. 저라면 그냥 바로 스킵하겠네요. 어차피 안 물어보니까요.

### 지문

전문가1:이 지역은 ○○문화의 중심지였고, 박물관에서는 토기와 왕릉의 왕관 등 ○○문화의 흥망성쇠를 보여 주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문화권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가의 제안 내용 첫번째가 나옵니다. 다른거 필요 없습니다.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는 단락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확인했고 39번과 49번을 염두하고 따라서~ 제안합니다까지 전문가 1의 의견에 밑줄 긋고 1번이라고 표기해두죠.

### 39번 문제 선지 ①

① ㉠ : 박물관에서 지역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시한다.

명확하게 문제가 나오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 바로바로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전문가 1이 여러 말을 할 수 있는 텍스트양이 아닙니다. 의견 나오는 대로 선지랑 직결될거예요. 1번선지는 그대로 써줬네요. 적절한 선지입니다.

### 지문

진행자: 지역의 역사와 유물을 고려해 상설 전시실 규모를 늘리자는 말씀이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락 문제입니다. 최대한 구조에 맞춰 변환해봅시다. 상대방의 의견을 요약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의견을 묻고 있네요. 이정로만 잡고 갑시다.

**38번 문제** 선지 ①

① [A] : ‘전문가 1’의 질문 내용을 요약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 2’의 생각을 묻고 있다.

꽤나 헛갈렸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빨리 보고 넘어가려고 하다보면 선지의 ‘요약’과 전문가 2의 생각을 묻고 있다는 표현만 보고 바로 답을 1번으로 찍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1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 요약이 틀렸네요. 그나마 단락을 바로 보고 체크하니 함정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38번 문제** 선지 ②

② [A] : ‘전문가 1’의 답변 중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밝히며 추가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지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추가 답변 요청도 아니죠. 전문가 2에게 물어본거니까요. 추가 답변 요청이었으면 전문가 1이 답변했을 겁니다 적절치 않은 선지네요.

**지문**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육, 공연, 시민 교류 등을 위한 시민 활용 공간들을 확보해서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전문가 2의 주장이 나왔네요. 밑줄 긋고 2번으로 하셔도 되고 전문가 2번 첫 번째 의견이니 1번이라고 적어놓고 세모 표시 해도 됩니다. 이번기회에~조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만 표시하면됩니다. 바로 문제 풀러 가보죠.

**39번 문제** 선지 ⑤

⑤ e :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면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함을 이유로 제시한다.

복합 문화 공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문장엔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하다는 말이 없죠. 바로 이게 정답이네요. 이 순간 우린 이제 39번 문제를 배제해도 됩니다. 다만 주장이 나올 때마다 40번을 위해 구분은 해줍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문 다 읽고 1번부터 순서대로 봤다면 우린 더 쉽고 빠르게 풀었네요.

**지문**

전문가 1 : 교육 공간의 확보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육 공간 이외의 시민 활용 공간보다 유물 보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쯤왔으면 질문하는 친구가 한 명쯤 나옵니다. 선생님 위의 동의한다는 표현이나 이 문장에서 같은 생각입니다를 안 잡는건가요? 결국 토의니까 동의 반대 보완 이거 중요한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지문 세트에선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안나왔음을 지문 읽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굳이 그럼 잡을 필요 없죠. 정보량 아까우니까요. 우린 전문가 1의 두 번째 주장만 잡고 갑시다. 유물 보존~중요합니다까지 밑줄 긋고 2번이라고 표시해놓죠.

**지문**

보존 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가1: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는 게 박물관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보존 공간이 부족해 5년 만에 재증축한 □□박물관의 전철을 뚫으면 곤란합니다. 증축할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행자의 말은 당연히 필요 없고 전문가의 발언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새로운 주장을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냥 스킵합니다. 문제로 만나오니까요.

**지문**

전문가 2 : 말씀에 공감하지만, 이번 증축을 계기로 박물관이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가 2의 두번째 의견이네요 밑줄 긋고 갑시다.

**지문**

진행자: 공간 구성에 대한 두 분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을 논의해 볼까요?

드디어 진행자에 관련해서 문제로 물어보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출제포인트로 변환하자면 발표를 진행시키며 다음 화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정도네요.

## 38번 문제 선지 ③

③ [B] : '전문가 1'과 '전문가 2'의 제안을 종합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의 종합도 자신의 의견 제시도 없습니다. 쉽게 지워낼 수 있습니다.

## 38번 문제 선지 ④

④ [B] : '전문가 1'과 '전문가 2'가 밝힌 의견에 대해 감사를 표한 후 이어서 논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 표현 있었고 다음의 논의사항 역시 제시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게 적절한 선지네요. 그럼 이 순간 더 이상 단락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건 새로 나오는 주장 하나씩 구분해주는 것만 하면 됩니다.

## 지문

진행자 : 방금 하신 말씀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궁금하네요.

전문가 2 : 박물관에서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겠군요

사실상 앞에서 잡았던 시민 의견 수용에 대한 이야기들이니 바로 넘어갑니다. 단락도 더 이상 집중할 필요 없고 이미 같은 정보를 앞에서 잡았으니까요.

## 지문

전문가 1 : 박물관의 핵심은 유물 보존과 연구입니다. 특히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실 있는 전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물 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가1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유물 연구의 강화를 이야기하네요. 밑줄 긋고 갑시다.

## 지문

전문가2: 최근 새로 제시된 박물관의 정의에 공동체의 참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지요. 이는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2의 다음 주장입니다. 시민의의견 수용 여기에 밑줄 긋고 갑시다.

# (나)지문분석

## 지문

학생회장 : ‘박물관에 바란다’를 보고 우리도 박물관에 건의하기로 했잖아. 무엇을 건의할지 이야기해 보자.  
 학생1: 전문가가 우리 지역은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했으니, 박물관을 왕릉 모양으로 만들면 뜻깊을 거야.  
 학생 2 : 흥미롭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가)의 전문가 1의 의견을 말하고 있지만 바로 반대 의견 맞고 사라집니다. 만약 (나)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뭐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학생 2의 반대가 나왔더라던지 학생1이 전문가 1의 의견을 활용해 의견을 제시했다던지 이런 문제가 나왔겠지만 (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하는건 (다) 작문에서의 적용입니다. 바로 넘어 갑시다.

## 지문

학생1: 그럼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 달라는 건 어때?  
 학생2: 그래. 역사학 관련 체험 강좌가 박물관에 없어서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게 문제였잖아.

매치되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바로 넘어갑시다.

## 지문

학생회장 : 방송에서 유물 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와관련한강좌는진로개발에큰도움이될거야. 또 다른 건의 사항 있어?

유물보존은 전문가 1의 2번째 의견이었죠 이 부분에 밑줄 긋고 2번이라 똑같이 매치시켜줍니다.

## 지문

학생1: 설명 위주의 기존 전시 방식에 친구들의 불만이 많잖아. 유물 모형을 만져 보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자.

이 내용은 (가)에 없었습니다. 새로 나온 내용이니 매치 된게 없음을 인지하고 넘어갑시다.

## 지문

학생2: 맞아. 박물관이 다양한 시민 활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도 그랬잖아.  
 학생회장 :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 볼게.

다양한 시민 활용공간은 전문가 2의 첫번째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줄 긋고 1번이라고 표기해서 매치시켜줍니다.

# (다)지문분석

엮여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지문을 읽으며 (가)(나)에서 나온 내용이 적용된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밑줄 긋고 구분해서 매치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40번의 행동 영역이죠. 그리고 ㄱㄴㄷ 문제랑 3문단 초고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건 2문단 까지 읽고 ㄱㄴ 선지 처리하고 나온 부분까지 40번 처리할 수 있는거 처리하고 3문단 읽고 바로 42번 보기와 비교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 읽고 남은 선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지문

박물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김◇◇입니다. 증축을 앞둔 박물관에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유물 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 청소년은 체험해 보는 교육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존 박물관은 유리벽 안의 유물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청소년의 불만이 많습니다. 유물 모형을 만져 보며 체험하는 공간이 생긴다면, ㉠지역의 많은 청소년이 유물의 가치에 대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박물관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체험 중 안전사고를 우려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자원 봉사자의 참여로 해결 가능하며, 이는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우선 (나)에서도 확인했지만 유물 모형 체험은 (가)와 매치가 안됩니다. 즉 40번에 유물 모형 체험이 나온다면 반드시 적절치 않은 선지일겁니다. 그러니 별다르게 밑줄 긋고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르게 읽되 출제 포인트 변환 문제가 ㄱㄴ으로 제시되었으니 ㄱㄴ만 출제포인트로 빠르게 변환해봅시다. ㄱ은 의견이 수용되었을 때의 기대효과를 드러내고 ㄴ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네요.

### 41번 문제 선지 1

① ㉡: 체험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맞지만 (나)와 매치가 안되죠. 독자는 박물관장이니 지문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이점과 매치가 안됩니다. 적절치 않은 선지네요.

### 41번 문제 선지 2

② ㉢: 체험 중 안전사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청소년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문제점을 해결해달라는게 아니죠. 바로 여기서 걸러집니다.

### 41번 문제 선지 3

③ ㉢: 체험 중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자원봉사 기회 제공이라는 이점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이점 비교 역시 없습니다. 바로 걸러지네요.

### 40번 문제 선지 4

④ ‘학생 1’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체험 교육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선호라는 건의 이유로 제시되었다.

체험 교육활동은 매치가 안됩니다. 바로 걸러지네요.

### 40번 문제 선지 5

⑤ ‘학생 2’가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역사학 관련 진로 체험 강좌의 부재라는 문제 상황으로 제시되었다.

사실 해당 문단에서 나온 내용이긴하나 매치되는 부분이 없으니 바로 걸러내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하나씩 안지워도 되는게 매치되는 거 나오는 거 그게 나온 선지가 정답이니 그 문장 나올 때까지 대기하다가 그 문장이 지문에 나오면 바로 정답을 체크하러 가면 됩니다.

## 지문

둘째, 청소년 대상의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은 ○○ 문화의 중심지여서 많은 청소년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많은 편이지만, 진로 체험의 기회는 부족합니다.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와 연결되는 포인트가 하나있죠. 바로 유물의 보존과 연구, 전문가 1의 첫번째 의견입니다. 밑줄 긋고 매칭시키죠. 이게 40번의 정답선지네요. 바로 가서 정답을 체크하고 42번과의 비교를 통해 42번 역시도 풀어봅시다.

### 40번 문제 선지 1

①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박물관의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로 제시되었다.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효과는 유물의 보존과 연구, 전문가 1의 첫 번째 의견과 매치되었죠. 정답입니다.

42. 다음은 (다)의 3문단의 초고이다. 3문단에 반영된 수정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③

박물관에서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역사적 자긍심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진로 체험의 기회가 부족하므로 체험 강좌가 운영된다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음악회, 미술전 등 문화 행사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⑤

- ① 청소년 진로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 ② 진로 체험 강좌의 수강 대상을 제시한다.
- ③ 청소년이 지역에 자긍심을 느끼는 이유를 추가한다.
- ④ 청소년이 진로 체험 강좌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밝힌다.
- ⑤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삭제한다.

초고문제는 문장 하나씩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위처럼 구분을 시켜놓으면 됩니다.

체크표시는 새롭게 추가된 부분을 밑줄은 삭제된 부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위의 숫자는 각각 이해를 위해 활용된 선지 번호입니다. 사실상 해설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 비교하고 체크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단순 일치로 풀 수 있습니다.

**지문**

건의를 수용할 경우 ㄷ 박물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하실 수 있지만, 이보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증축될 박물관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참여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문제는 41번의 4번과 5번선지 뿐입니다. 그러니 빠르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봐야겠죠. ㄷ은 상대방이 가진 우려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해당 건의가 수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이보다'라는 표현으로 비교하며 제시했네요. 둘 중 이와 가까운 선지 하나를 고르면 되겠네요.

**41번 문제** 선지 ④ 선지 ⑤

④ ㉞: 박물관 운영상의 부담이 해결된다는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⑤ ㉞: 박물관 운영상의 부담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5번선지가 상대(박물관)가 가진 우려점(부담)과 건의가 수용될 경우의 기대효과(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이보다)하고 있네요. 바로 5번선지 찍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문을 다 읽음과 동시에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아마 기출을 통한 정확한 체계와 분석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은 조금은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풀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닌 강으로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지문의 정보량 일차원 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 학생들에게 정말 지옥이었을 것 같네요. 정말 많이 왔다갔다 했을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유형이 아닌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두 번째 페이지 문제였습니다.